

---

# 경제 모델의 현실화와 언론의 (탈)현실화: 쿠바 개혁에 대한 언론의 동의, 이의, 침묵

라울 가르세스 |

---

원제와 출처: Raúl Garcés, “La actualización del modelo y la (des)actualización de la prensa: consensos, disensos y silencios mediáticos en torno a la Reforma cubana”, en *Oxal*, No. 36, Diciembre de 2014, pp.47-59.

핵심어: 언론, 매스컴, 개혁, 담론, 국가, 이념

쿠바에서 ‘경제 모델의 현실화’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는 각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논거를 찾고 있다. 비관주의자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며,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권 인정이 지나치게 점진적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낙관주의자는 현재 노선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현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당국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예로부터 배우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쿠바인은 ‘당과 혁명의 경제사회정책노선’(이하 ‘노선’으로 표기함)에서 상반된 판단 기준과 뜨거운 논쟁거리를 찾아냈다.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사유재산을 오랫동안 좌악시켰다)의 실패와 기회, 협동조합(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농업부문에 한정되었다)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까

다로운 절차, 차량 매매의 자유화가 초래한 지나친 가격 상승, 자영업자가<sup>1)</sup>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부재, 인민권력전국회의가 승인한 외국인 투자법, 통화단일화 같은 문제는 블로그라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라든가 문화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와 같은 곳에서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되었다. 물론 이런 시도가 여론 형성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양에 점점이 흩어진 섬과 같아서 대중매체의 광범위한 과급력과는 상대되지 못한다.

쿠바의 현실을 해석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 언론이 보여준 무능은 쿠바 내에서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적하는 문제이다. 이 비판의 대열에는 쿠바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1980년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스페인에서 발행하는 신문 『엘 피이스』에 기고한 글에서 쿠바 언론의 사설에 나타난 흑백논리와 관에 박힌 문구를 지적하면서 “쿠바 언론은 다른 행성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같은 시기 라울 카스트로도 직설 화법으로 그 문제를 인정했다.

우리는 외국에 사는 우리 동지들이, 솔직하고 지식이 많고 또 우리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런 동지들이 왜 쿠바 언론에 대해 자주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지겹고 짜증 난다고 푸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이런 비판에 귀머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며, 병어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또 그런 비판을 배척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sup>2)</sup>

2013년 7월에 개최된 쿠바기자연맹(UPEC) 총회에서는 오랜만에 쓴소리가 봇물처럼 터졌다. 피델 카스트로의 탁월한 선전 능력과 카리스마적 통솔력이 부

1) 쿠바의 공식 담론에서 언급하는 자영업자(cuentapropista)는 개인 소유주(proprietario individual)와 같은 뜻이다.

2) Juan Marrero, *Congresos de periodistas cubanos*, Pablo de la Torre, La Habana, 2006, p.66.

제한 상황에서 쿠바가 변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또 사건 중심보도, 숫자로 가득 채운 정보, 과도하게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논조는 매스컴의 언어에 창조적 힘과 지적인 대담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언론 부문의 비전문화(상당수가 대학에서 언론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다)와 경제적 제약이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근대화 운동을 선도할 비판적 대중의 부재가 무기력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총회의 어느 발제문은 다음과 같이 핵심을 짚고 있다. “우리가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론의 설득력은 약해지고 신뢰는 추락할 것이다.”<sup>3)</sup>

한편, 언론계 바깥의 분위기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기자가 접근하면 취재원(取材源)<sup>4)</sup> 명성에 흠집이 날까 봐 장벽을 세운다. 관료는 더 높은 담을 쌓고, “혁명의 적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보를 완전히 차단한다.

비록 버락 오바마 정부가 쿠바 봉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반 백 년간 유지된 체제전복정책이나 침략정책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의 AP통신사는 최근 두 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대학센터 연수를 통하여 쿠바 젊은이들이 ‘체제 변화’에 앞장서도록 독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가늠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이념 대립의 정도만큼 정보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쿠바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학자인 훌리오 가르시아 루이스(Julio García Luis)는 미국의 신문방송학과 학생들과 대담에서 9·11 이후 미국이 겪은 상황과 쿠바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비교했다. “쌍둥이 빌딩이 공격받은 뒤, 누가 뉴스의 정보

3) Raúl Garcés, “Siete tesis sobre la prensa cubana. La Habana, 2013”. <http://www.cubadebate.cu>

4) 이 글에서 ‘취재원’이라고 할 때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 옮긴이.

출처에 대해 만족할 수 있었습니까? 미국 저널리즘은 그 사건이 있었던 후 몇 달 간, 아니 그 후 몇 년 동안 테러 후유증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쿠바는 지난 50년간 계속 9·11 사태를 겪으면서 살아온 것입니까”라고 결론지었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쿠바가 추진하는 자기 혁신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언론 분야의 급진적 변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제6차 쿠바공산당전당대회와 몇 달 뒤인 2012년 1월에 개최된 제1차 쿠바공산당전국회의(Primera Conferencia Nacional del Partido Comunista de Cuba)에서 승인된 ‘쿠바공산당 정책 목표’ 가운데 아래 조항은 마스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sup>5)</sup>

이념적·정치적 활동, 경제, 지식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정보통신기술의 장점을 이용한다(목표 52).

홍보와 사회적 소통 작업에 존재하는 형식적인 표현, 창조성의 결핍, 낡은 시각은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수신인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므로 배격한다. 다양한 대중의 성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목표 67).

시청각 매체, 인쇄 매체, 전문 디지털 매체 등 각기 특성에 맞는 매체를 통하여, 경제적 상황, 직업, 사회적 상황, 성, 피부색, 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출생지 등 매우 다양한 쿠바 현실을 반영한다(목표 69).

5) Partido Comunista de Cuba, “Objetivos de trabajo del Partido Comunista de Cuba aprobados en la Conferencia Nacional”, 2012.

대중매체는 우리가 맞아야만 하는 도전, 실패, 난관, 현안, 혁명사업의 진전 등과 관련된 당의 정책을 투명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비밀주의적인<sup>6)</sup> 표현과 공허한 정보는 배제하며, 주민의 흥미나 필요를 고려한다(목표 70).

대중매체는 과학적인 연구와 관점에 근거해야 하고, 효과적인 토론 공간과 문화진달의 장이 되도록 하며, 지식 전달, 분석 제공, 의견 개진의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언론과 취재원은 자기 소임을 완수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보도에 이바지해야 한다.(목표 71).

엄격한 기준에 따른 외산 프로그램 선정, 국산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방송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기초하여 쿠바라디오텔레비전방송(ICRT)의 편성정책을 현실화한다(목표 72).

보다시피, 위에서 언급한 정책 목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태의연한 비밀주의를 배격하려는 장기 전략이다. 그러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노선’과 ‘쿠바공산당 정책목표’에 포함된 정신은 진보적인 정책의 입안뿐만 아니라 그 정책 실행을 뒷받침해줄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한다. 현재 쿠바에서 정치와 언론의 관계는 다시 한 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회주의 기획을 위해서는 사회적 동원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기능적으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존중하나 이행하지 않는다”<sup>7)</sup> 옛말처럼 시민들의 눈앞에서

6) 쿠바에서 비밀주의(secretismo)란 소수의 엘리트가 정보를 독점하고,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 옮긴이.

7) 식민시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스페인 국왕의 칙령이나 식민지관련 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문화시켰다는 데서 유래한 어구이다 — 옮긴이.

는 ‘모델의 현실화’를 추구하는 척하면서도 실제 정치와 언론의 관계는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 있다.

## 경제 정보 없이 정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근까지 아마도 많은 쿠바인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을 것이다. 보건, 교육과 문화 부분에서 모두에게 양질의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능한 국가에 길든 쿠바인은 대부분 채산성, 비용, 이익과 같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소련과 옛 사회주의 진영과의 전략적 관계에서 혜택을 본 쿠바는 일종의 낙원 같아서, 1980년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동유럽이나 국내 여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런 신기루는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함께 사라지고 소련의 해체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실제로 쿠바는 하루아침에 대외무역의 70%를 상실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쿠바는 세계를 일률적으로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의 위력과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좌파에 대한 불신 속에서 경제성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11년 4월에, 쿠바공산당전당대회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 건설하고, 국가의 중단기 목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번영하는”과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는 라울 카스트로가 새 모델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사용한 형용사이다. 이 새 모델이 선언적인 구호이든 아니든 간에 과거의 유토피아적인 이상보다는 냉엄한 실용주의를 채택했다.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임금 인상도 없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재분배도 할 수 없다.” “관료와 불필요한 직원을 줄여야만 한다.” “국가는 불필요한 짐에서 해방되어야 한

다.” 오늘날 쿠비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이런 말은, 과거 국가후원주의(paternalismo)로부터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제 국민을 변화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 전반에 새로운 경제관념을 불어넣고, 사람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압박과 사회주의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딜레마를 페르난데스 마르티네스 에레디아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쿠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심각한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가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런 갈등을 지배하는 균형이 언젠가는 깨지리라는 것이다. 현재와 장래의 쿠비를 위해 우리는 사회주의에 봉사하는 정치경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또 현재 전개되고 있는 문화 투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유익한 사회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sup>8)</sup>

언론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언론의 논조를 완전히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도 취재원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또 여론형성이 활발하지 않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마스크를 선전도구로만 이용하지 않으려는 정책결정권자들의 태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경제 모델의 현실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몇 달 전, 경제전문기자들은 쿠

8) Fernando Martínez Heredia, “En Cuba debemos combinar bien el realismo terco con la imaginación”, 2014. <http://www.cubadebate.cu>

바의 대중매체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즉 실무선에서 해결할 일을 대중매체 밖에서 결정하는 폐단을 지적했다.

세간에서는 흔히들 미디어는 의제를 기획하고 주제를 설정해야 하며, 관계기관은 이에 답변해야 한다고 여긴다. [...] 현재는 관계기관이 어떤 주제를 어떤 시각에서 다루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어떤 단어가 적절한지도 결정한다. 취재원이 미디어의 의제(agenda)까지 설정하려고 드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다. 취재원이 대중매체를 무시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며, 이보다 나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인 기민성을 도외시하기 일쑤여서, 작성한 기사를 다시 검토하라고 하거나, 어떤 정보를 요청할 때는 “근일 기자회견이 있을 테니 기다렸다가 그것을 인용하시오”라고 말한다. 언론의 생명은 신속성이라는 것을 모른다.

취재원은 언론을 실리적으로만 생각하며, 전문직으로서 기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단순히 정보의 전달 통로라고 생각한다. [...] 삶의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들이 중요하다고 믿는 메시지만 보도하길 원한다.

임의로 정보를 차단하는 취재원이 있다. 비밀주의에 빠진 것이다. 아무튼, 쿠바가 현재 경제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순진한 일인 텐데도 많은 당 간부는 이런 사실을 부정한다. [...] 이런 당 간부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sup>9)</sup>

정확하게 말하면, 비밀주의에 대한 불만이 미디어 영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몇 십 년 동안 여러 학문 분야(특히 사회과학)의 연구자는 쿠바 현실을 심도 있게

9) Lisandra Fariñas, “Fuentes y periodistas. Variaciones de lo posible. Un estudio de la relación fuentes-periodistas en el periodismo económico nacional”, Tesis de licenciatura, Facultad de Comunicación, La Habana, 2011.

연구하려면 접근이 제한된 문서, 통계,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학 분야에서 오래 연구한 마이라 에스피나는 불평등 문제를 연구하면서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비밀주의였다고 말한다.

불평등과 관련된 쿠바 통계 자료의 수는 계속 줄어들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발표 한 자료는 그렇다. 그리고 통계를 내는 방식도 자주 바뀌었다. 따라서 통계 자료 사이에 격차가 있고,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눈을 감고 연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sup>10)</sup>

2000년 초반에 잡지 『테마스』의 편집장인 라파엘 에르난데스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1980년대와 1990년대 쿠바 사회사상의 약점을 진단하면서 연구결과와 정책입안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강조했다.

몇몇 연구결과는, 연구 자료의 성격이나 분석 과정에 도출된 제안으로 보건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까닭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일종에 비밀주의 문화가 생겨난다. 이처럼 연구 결과의 활용 부족은 이념, 사회의식, 지식 발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sup>11)</sup>

10) Mayra Espina, “Hacer trabajo de campo: avatares de la sociología de las desigualdades en Cuba”, 2013. <http://temas.cult.cu>

11) Rafael Hernández, *Sin urna de cristal. Pensamiento y cultura en Cuba contemporánea*, Centro de Investigación y desarrollo de la cultura cubana Juan Marinello, La Habana, 2003, p.22.

이 문제 외에도 누적된 여러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쿠바의 여러 지도자, 특히 라울 카스트로 의장의 말처럼 사고방식을 바꾸고, ‘노선’의 실현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변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사회주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은 쿠바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출발점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토론과 논쟁의 공간이라는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다양한 여론의 흐름을 매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이 ‘노선’에 취합된 시민의 뜻과 현실 사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 공산당전당대회와 쿠바공산당전국회의를 다룬 신문 『그람마』의 보도를 분석한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표현이 일률적이고 형식적이고, 공식 자료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해설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지나치게 교훈적인 어조로 ‘지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특징이 쿠바 “언론의 일상적인 행태”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먼저 정치적·사회적 행위자의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런 개선 의지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나 구조를 만들어내만 한다”고 결론 지었다.<sup>12)</sup>

이로부터 2년 후인 2014년, 아바나대학교 언론대학 재학생으로 졸업논문을 쓰는 그룹<sup>13)</sup>도 같은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12) Luisa María González, “Granma cuenta como fue”, Tesis de licenciatura, Facultad de Comunicación, Universidad de la Habana, 2012.

13) 2013년과 2014년에 필자와 아벨 소모아노(Ábel Somohano) 교수가 지도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Elizabeth Cabrera Morejón, “¿Actualización en primera plana? Un estudio sobre la correspondencia entre la agenda pública de un grupo de cuentapropistas habaneros y la de medios nacionales en torno a la actualización del modelo”, Ferrer Brenda, “El consumo informativo en torno a las noticias de la actualización del modelo”, Geisy Guía, “Actualización, ¿por dónde empezar? Un estudio sobre el discurso de los periódicos Granma y Juventud Rebelde en torno a la actualización del modelo”, Raúl E. Medina, “Escribir la Reforma. Mediación socioprofesional en el proceso de producción periodística sobre la actualización del modelo”, Anabel Mieres, “De las agencias y otros demonios. Un acercamiento a la

같은 결론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1) 경제개혁 관련 보도는 대부분이 분석이나 해석이 없는 단순 보도의 형태를 취한다. 비근한 예로, 자영업 종사자의 현황 보도를 보면, 자영업자의 기대와 불만 그리고 국영부문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한 현황만 얘기할 뿐, 민간 부문의 이상적인 범위라든가 현 쿠바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공 부문에 통합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가운데 하나는 자영업자 인터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자영업자는 자신이 바라는 언론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는데, 이런 말에서 기존 언론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경제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국제문제보다 국내문제에 우선 다루어라”, “경제적 변화의 결과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다루어라”, “‘노선’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평가하라”, “경제 모델의 현실화를 다루는 고정 칼럼이 필요하다”, “경제 관련 장관과 책임자를 자주 보도하라”, “풍문보다 앞서 보도하라”, “변화에 대해 찬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라”, “과정을 비판할지라도 실제 변화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시하라”.<sup>14)</sup>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화라는 큰 목표의 실행 과정을 심층 취재하여 연속 보도하고 싶다”, “우리는 더 조직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제(agenda)가 사람들의 관심사와 부합하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sup>15)</sup> “개혁 조

construcción del discurso periodístico en torno a la actualización del modelo en Reuters, AFP, EFE, AP y Xinhua”.

14) Elizabeth Cabrera Morejón, “¿Actualización en primera plana? Un estudio sobre la correspondencia entre la agenda pública de un grupo de cuentapropistas habaneros y la de medios nacionales en torno a la actualización del modelo”, Facultad de Comunicación, Universidad de la Habana, 2014.

15) Raúl E. Medina, “Escribir la Reforma. Mediación socioprofesional en el proceso de producción periodística sobre la actualización del modelo”, Facultad de Comunicación, Universidad de la Habana, 2014.

치는 여러 문제점, 모순, 저항을 야기한다. 언론은 이런 점을 밝혀내야 하며 [...] 개혁 조치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를 지적할 수 있는 독립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sup>16)</sup>

2) 취재원 접근에 제약이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편견이나 제도적 장벽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취재할 때 언론인 특유의 공격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쿠바 언론은 역사적으로 도구로 이용되어왔고, 언론은 뉴스를 전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현실화’ 조치의 시행에는 복잡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반대나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취재원이나 고위층의 말을 “참고하는 것”은 기자나 편집부 모두 기사 작성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다.

이런 과정은 가끔 정확한 기사 작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인의 논리가 언론 보도에 치명적인 간섭을 야기할 수도 있다. 쿠바 일간지의 한 젊은 여성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출처 제시가 언론 보도의 타당성을 입증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쿠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기관이 뒤늦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은 기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sup>17)</sup>

외국 특파원 역시 비밀주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외국 통신사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경제에 대해서 쓰고자 할 때마다 이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이 통신사 대표에 따르면, 이러한 걸림돌은 쿠바가 성취한 여러 성과를 보

16) Geisy Guía, “Actualización, ¿por dónde empezar? Un estudio sobre el discurso de los periódicos Granma y Juventud Rebelde en torno a la actualización del modelo”, Facultad de Comunicación, Universidad de la Habana, 2014.

17) Raúl E. Medina, op. cit.

도하려고 할 때 부메랑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쿠바 정부의 구미에 맞는 사안을 보도하고 싶어도 허가를 받는 데만 3주가 소요된다. 그때쯤이면 이미 기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도를 포기한다.”<sup>18)</sup>

그러나 기자들도 모든 문제가 취재원에게만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이에 못지않게 언론계의 전문성 부족도 큰 문제이다. 그 원인은 언론계 인사의 이직(보수가 좋은 분야로), 지나치게 엄격한 언론 정책, 편집진 양성 부족, 기자의 업무 과중이다. 예를 들어, 쿠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간지의 편집부 국내 담당 기자는 겨우 10명이다. 이 인력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사 업무까지 처리한다.

소수 인력이라도 시중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많은 언론은 관행적으로 공식 취재원을 만나서 기삿거리를 얻을 뿐, 길거리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헤이시 기아가<sup>19)</sup> 언급한 채소 노점상(보통은 ‘리어카장사’라고 부른다) 관련 기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 기사는 채소 노점상이 정부가 인정한 자영업 업종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고, 농림부, 아바나 주 관계자 인터뷰까지 실었지만, 정작 채소 노점상인과 고객의 인터뷰는 없었다.

3) 언론의 정치적 방향제시라는 관념(쿠바의 특정 언론을 통해서 국가와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홍보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방향제시라는 관념)은 규제가 극심한 현실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쿠바의 언론은 정부 기관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확대 재생산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 공간이라는 역할보다는 ‘국가의 이념적 기구’ 역할을 했다. 편집권

18) Anabel Mieres, “De las agencias y otros demonios. Un acercamiento a la construcción del discurso periodístico en torno a la actualización del modelo en Reuters, AFP, EFE, AP y Xinhua”, Tesis de licenciatura, Facultad de Comunicación, Universidad de la Habana, 2014.

19) Geisy Guía, op. cit.

의 독립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여러 문헌에서 적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은 많은 경우 정부 기관의 공식 보도자료 전달 창구이다.

아바나대학교 언론대학의 전 학장인 홀리오 가르시아 루이스는, 쿠바 언론의 당파성과 다양한 사회부문의 견해를 보도해야 한다는 소명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당 지도부가 이른바 뉴스메이킹(newsmaking)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무엇을 다루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결정한다.

어떤 소식을 전해야 인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당의 판단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마저도 없다면, 언론은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고 양분된다.

당이 중심 역할을 해야만 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그 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한 역할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워야만 한다. 그러나 사상을 행정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 통제도 안 되고, 결국 화살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지난 제6차 쿠바공산당전당대회는 언론의 도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최고의 시험대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행사 보도를 위해 선발된 기자단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개회 연설에서 쿠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방식을 바꾸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언론은 내외적으로 비판의 대상이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전당대회 개회 관련 보도는 모든 신문에서 동일했고, 이후 프레스센터의 보도 기사도 동일한 사진과 동일한 중간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어려움은, 기자는 보도 내용

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상투쟁에서 무기력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자로서 역할을 빼앗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율성은 이른바 ‘언론의 독립’이라든가 혁명 이전에 유행했던 권력의 ‘경비권’ 같은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한 독특한 입장은 아마도 언론이 현재 진행 중인 개혁에 대한 지원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쿠바 기자의 직업 문화에서는 당의 편을 드는 것이나 정치적 참여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직업적 이상은 복잡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취재원이 좀 더 개방적이며, 사회 문제를 은폐하거나 빙빙 돌려 완곡어법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싶어 한다. 기자협회가 주최한 수십 차례 모임에서 기자들은 국가의 우선 과제와 독자와 시청자의 정보 요구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사회주의 체제의 공적 영역 강화에 공헌할 수 있는 혁명언론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런 모델을 얼마나 체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젊은 세대에게 혁명언론 모델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 몇 년 전 직업적 이상에 관해서 인터뷰한 언론계 지망생들은 자유주의가 퍼뜨린 ‘반정부 언론’ 세력과는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동시에 쿠바 사회주의 맥락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보다 더 어린 지망생들은 “언론이 동시대와 동시대적 가치에 투신하고, 현실을 반영하고, 혁명적·비판적·참여적·성찰적·윤리적·인간적 가치에 충실하면서 인민의 편에서 사회악을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인민이 혁명적 변화의 실제 행위자임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0)</sup>

20) Yenira Estenoz y Sailín Martínez, “Eramos tan jóvenes. Una aproximación a la representación del periodismo cubano actual en los estudiantes de Periodismo de la Universidad de la Habana”, Tesis de licenciatura, Facultad de Comunicación, Universidad de la Habana, 2006.

## 쿠바 언론의 미래. 터널 끝에 비치는 서광인가?

지난 쿠바기자연맹 총회 폐회식에서 국가평의회 수석 부통령 미겔 디아스 카넬은 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언론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가 단지 기자들에게만 있는 것도, 미디어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언론을 강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아비판을 해야 한다.”<sup>21)</sup>

그때부터 지금까지, 디아스 카넬은 정부 기관, 각 부처, 공적 단체의 비밀주의 척결에 앞장서서 언론의 장애물인 ‘지침’(명시적이든 아니든)을 폐기했다. 폐쇄적인 사고방식은 교육부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기자가 지방 학교조차 방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직은 작은 변화이기는 하지만 쿠바 내 외국 통신사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은 이런 변화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AFP의 특파원 가운데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전에는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바나대학교의 쿠바경제연구센터와 국제경제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바로 그렇다. [...] 이것은 기사의 완성도가 높다는 의미에서 외부에 높은 신뢰감을 준다.” 아바나에 있는 BBC의 전 특파원은 다음과 같이 부언한다. “디아스 카넬이 언론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sup>22)</sup>

다른 사람들의 기대 표명은 조금 더 신중하다. 언론 개혁은 일반적인 사회 개혁의 일부라는 것이다. 수석 부통령이 쿠바의 빈약한 언론 문화를 인정한 것은 언론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 즉 쿠바의 사회민주주의 내에서 합의 형성의 문제로 본다는 뜻이다. 의사소통을 중시한다는 것은 여론을 참작하여 중요 사안을 결정

21) Miguel Díaz Canel, “Discurso en la clausura del IX Congreso de la UPEC”, 2014. <http://www.cubadebate.cu>.

22) Anabel Mieres, op. cit.

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상이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도록 하고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정치체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쿠바 신문기자의 직업적 이상에 대해 조사한 로사 미리암 엘리살데는 지난 쿠바기자연맹 총회에서 좀 더 다양하고 참여적인 언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정보, 지식, 문화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공공성(lo público)을 “각계각층의 주민이 만나는 공간” 또는 이질적인 사회 부문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상호 인정하는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대중에게 파급력이 큰 의사소통 플랫폼으로써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등장, USB 메모리, 외장 하드, DVD 플레이어, 이동통신기기의 보급 확대, 효율적인 인터넷망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의사소통 방식도 갈수록 인터넷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예전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히 구별되었다면, 지금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전에는 메시지의 전달이 일방적이었고, 중력이 작용하듯이 미디어에서 청중 쪽으로 ‘내려갔다’면, 지금은 모든 방향에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호평을 얻으려고 경쟁한다. 공공성은 이른바 미디어의 공공성에서 이보다 훨씬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으로 바뀌었다.

쿠바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참여적인 언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23) Rosa Miriam Elizalde, “El consenso de lo posible”, Tesis de doctorado, Facultad de Comunicación, Universidad de la Habana, 2013.

- 이전과 달리 오늘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침묵한다고 해서 공적 공간에서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은 비공식 통로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수신자가 언론 바깥에서 정보를 얻기가 쉬워지고, 공적 의제와 언론의 메시지 사이의 격차가 크다고 생각할 때, 언론의 상징자본은 고비용을 치른다. 이런 비용을 치르는 쪽은 특정 TV 방송국의 시청률이나 신문의 발행 부수가 아니다. 그보다는 쿠바혁명의 정치적 투쟁 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던 공적 미디어에 대한 신뢰성이다.

-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쿠바 사회의 요구에 대한 언론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리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언론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길게 나열하고 있듯이, 결과는 늦게 나타나지만 쿠바가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합의의 재생산 논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각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당국의 주문을 언론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제도성 강화를 의미할 것이다. 제도성 강화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배양하는 것이며, 정보의 출처로서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토론의 장으로서 언론의 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 영역에서 정보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미디어의 지도력을 증가하는 것이며, 새로운 통신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략적 조정을 통해서 새 시대의 헤게모니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지난 쿠바기자연맹 총회에서 디아스 카넬의 발언은 언론계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언론계의 숙원인 언론법이나 국가평의회령(decreto-ley) 제정 가능성, 미디어 운영의 새로운 모델 구축, 나아가 ‘국가적인 것’(독점적인 콘텐츠 생산과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보다는 공공성(사회적 합의의 구축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에 우선한 언론정책 수립 같은 것이다.

비록 쿠바기자연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언론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로 기자는 점점 힘들어졌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콘텐츠 생산에서 비전문화인의 흔적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성과 체념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이를 극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쿠바기자연맹 총회에서는 훌리오 가르시아 루이스가 유작 『혁명, 언론, 사회주의』(Revolución, Periodismo y Socialismo)에서 제시한 사항과 기타 여러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는 ‘밑으로부터’의 운동을 촉진해서 언론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쿠바기자연맹은 일반적인 청사진보다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했으며, 비현실적인 선언보다는 내부의 요구, 다시 말해서 개혁 정신의 확산과 이에 장애가 되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조건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어떤 사람들의 머리 위로는 이미 한물간 글라스노스트의 망령이 날아다니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뢰가 가득한 현장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아직도 ‘포위된 광장’<sup>24)</sup> 들먹이고 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축적된 쿠바의 문화 자산을 고려하고 또 정보화 사회라는 문명적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정체보다 비싼 대가는 없다는 얘기가 가장 설득력 있다.

[조영현 옮김]

24) 이 말은 1990년대 쿠바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구호 “포위된 광장에서 반체제는 배신이다”(En una plaza sitiada, la disidencia es traición)에서 따온 것이다 — 옮김이.